

온 가족의 동대문 나들이 명소

요즘처럼 동대문이 주목받은 적이 있던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동대문디자인플라 자라는 새로운 랜드마크의 등장 덕에 우리 의 발걸음은 동대문을 향하게 된다. 동대문 의 역사적 재탄생 모습을 둘러본 후 단란 한 가족 외식 장소를 찾는다면 여기가 어떨 까? 이곳 또한 오픈한 지 2개월 남짓한 핫 플레이스, 동대문 구역의 유일한 특급 호

텔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이다. 이곳의 올 데이 다이닝 뷔페 레스토랑 **타볼로24**에서는 탁 트인 유리창 너머로 대한민국 보물 1호 흥인지문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채소 소믈리에가 엄선한 과일과 채소로 만든 오늘의 주스로 목을 축인 후 다국적 진미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빠져들면 된다. 양고기의 퀄리티가 좋으며 즉석에서 조리한 해산물 사프란 리소토, 맑고 깨끗한 국물 맛을 자랑하는 쌀국수, 신선한 참치·전복·킹크랩 등으로 화려하게 채운 시푸드 스테이션을 두루 맛보도록. 5월 한 달간 카빙스테이션을 통해 BLT 스테이크의 프라임 비프를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치킨, 미니 버거, 유기농통밀 파스타, 밀크셰이크 등 어린이 메뉴도 있으니 유아 동반 가족이라면 기억해둘 것. 문의 2276~3000

There was no time when Dongdaemun received as much attention as it does today. Dongdaemun Design Plaza has finally become a new landmark. You may want to find a place to eat after visiting the historical rebirth of Dongdaemun. JW Marriott Dongdaemun Square Seoul is the only five-star hotel in the district has buffet restaurant **Tavolo24**, an all-day dining place. The restaurant has a beautiful view of the national treasure No. 1, also called Heunginjimun. Start with a glass of juice, made with fresh fruits and vegetables that are selected by a vegetable sommelier. Then, the world of multinational delicacies is opened for you. Lamb has a good quality. Seafood saffron risotto is served on the spot. Also, Seafood Station serves fresh tuna, abalone and king crab. In May, Carving Station presents prime beef from BLT Steak. There are also kids' menus like fried chicken, mini burgers, organic whole wheat pasta and milkshake.



세계가 인정한 모던 코리안 파인 다이닝

시·화·담은 신선설농탕으로 유명한 한식 전문 외식 기업 ㈜쿠드에서 오픈한 품격 있는 모던 코리안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다. 블랙 &화이트의 모던한 공간에 고서화와 고가구를 배치해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분위기에서 한 편의 시가 적힌 예술적 음식을 맛보고 감상하듯 즐길 수 있는 곳. 메뉴는 코스로만 구성했는데, 코스별 10~18개에 달하는 디시를 제공한다. 증편에 불고기와 야채를 넣고 잣 소스를 곁들인 '코리안 런치박스', 오징어 먹물 스파게티 면에 김치를 얹어내는 '김치가 파스타를 만났을 때' 등 한식의 변주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유명 도예가의 작품에 담긴 음식은 식용 꽃으로 장식해 오감을 자

극하기도, 시·화·담은 지난 11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를레 앤 샤토 총회에서 새 멤버로 공식 승인을 받았다. 세계인이 인정한 한식의 멋과 맛 그리고 품격.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과 추억을 공유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선택이다. 방문 2~3일 전 예약 필수. 문의 798~3311

Si-Wha-Dam is a modern, refined Korean restaurant. Decorated with ancient calligraphic works and antique furniture, the modern black and white establishment creates a gallery-like atmosphere where you can enjoy artistic food, served with a poem. There are only course menus that come out with 10 to 18 courses. 'Korean Lunch Box' is made with bulgogi, vegetables and Jeungpyeon, a replacement for bread. 'When Kimchi Met Pasta' is squid ink spaghetti with sautéed kimchi. The restaurant was officially accepted as a new member to Relais & Chateaux last November. Recognized by the world, the restaurant is a perfect place to share good memories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and to enjoy the taste, beauty and elegance of Korean cuisine. You should make a reservation two or three days ahead.

부부만의 달콤한 데이트

청계산 자락의 한적한 동네 판교 운중동. 별장 같은 하얀 주택, 그 안에 절제되었지만 격조 있는 모습으 로 자리 잡은 로네펠트 티하우스가 있다. 노출 콘크 리트와 다크 우드, 화이트 리넨이 만들어낸 편안하 면서도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로네펠트 티와 프렌치 퀴진의 멋진 조화를 경험하는 곳, 이찬오 총괄 셰프 가 매일 장에서 구입한 신선한 식자재와 레스토랑 옆 텃밭에서 기른 허브와 식용꽃을 더해 자연의 맛 을 선사한다. 그날그날 메뉴가 바뀌므로 오늘은 어 떤 음식을 먹게 될지 기대감을 품게 한다. 식후 커피 대신 50여 가지 로네펠트 티 중 하나를 선택해 즐길 수 있다. 아삼에 파인애플, 파파야 등 열대 과일 향을 더한 샹그릴라, 향긋한 꽃향기와 개운한 맛이 나는 루이보스 밸런스를 추천한다. 미취학 아동은 동반할 수 없으니 부부가 오붓하게 드라이브 삼아 찾아가면 좋을 듯. 단, 예약 필수다. 문의 031-709-9248

Ronnefeldt Tee Haus is nestled in a white villa house in Unjungdong. Finished with exposed concrete, dark wood and white linen, the refined yet comfortable teahouse serves a fabulous harmony of teas from Ronnefeldt and French cuisine. Executive Chef Chanoh Lee presents the taste of nature by purchasing fresh ingredients every day and using herbs and edible flowers that are planted in the farm next to the restaurant. You would be excitedly curious about the menu because it changes every day. You can also choose one among 50 kinds of tea from Ronnefeldt after your meal. Recommended are Shagrila, an Assam tea flavored with tropical fruits and Rooibos Balance, a pure, floral tea. A couple can have a good excuse to go without their children since a child under 8 is not allowed.

